

6/20/21

설교 제목: 내 백성을 보내라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출애굽기 5장 1-23 절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출 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출 5:3)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출 5:4)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출 5:5)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출 5:6)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출 5: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쭉게 하라

(출 5:8)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출 5:9)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출 5:10)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출 5:11)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출 5: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출 5:13)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출 5:14)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출 5:15)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출 5:16)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출 5:17)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출 5: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출 5:19)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출 5: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출 5: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출 5: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 5:23)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이적을 행하여 보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 시키기 위해 이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지도자로 인정을 받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신다고 전합니다.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 일언지하에 거절합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고 반문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알지 못하여 당신의 령을 거스리는 바로 왕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출 5:1)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은 내 백성이니 그들을 보내어 그들로 하여금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스라엘이 당신의 백성임을 선포함으로 바로 왕은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바로 왕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 년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 왕의 통치 하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으로 있었던 이주 초기에는 그렇지 않았으나 요셉을 알던 왕조가 망하고 지금의 새 왕조가 들어선 후 이들은 노예로 전락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대해 아무런 권한이 없다니요?

애굽은 힘이 세고 성실한 이들을 노예로 사용하여 막대한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쉽게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왕은 여호와가 도대체 누구인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느냐며 단호히 거절합니다.

(출 5:2)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관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 왕은 타락한 인생이 본성적으로 지니고 있는 완악함과 무지를 드러냅니다.

이런 바로에게 하나님은 애굽 땅에 열 가지 재앙들을 내리심으로 여호와 당신이 누구인지를 여실히 보여 주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다시 허락을 구합니다.

(출 5:3)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 왕에게 출애굽의 목적에 대해 광야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기를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단지 그들이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그들이 당신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영원토록 당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모세가 바로 왕에게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가나안'인데 왜 모세는 바로 왕에게 '가나안'으로 간다고 하지 않고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라고 하였을까요?

우리는 전 장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 3:12)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본래 출애굽의 1차 목적지는 가나안이 아니라 시내산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후 시내산에 1년을 머물면서 성막을 짓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 바로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시내산으로 갔던 이유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 그곳에서 하나님과 첫 언약을 피로 체결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 9:18)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히 9:19)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다는 언약을 이곳 시내산에서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체결한 것입니다.

(출 24: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출 24: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출 24: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출 24: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출 24: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것은 영적 출애굽의 그림자입니다.

영적인 출애굽 때는 시내산 대신 갈보리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피뿌림을 받습니다.

(히 12: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 12:23)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히 12:24) 새 언약의 증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의 메세지를 전했으나 바로 왕은 하나님의 메세지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기는 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욱 무거운 고역을 부과합니다.

(출 5:4)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으로 역사를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역사나 하라

(출 5:5) 또 가로되 이제 나라에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하고

(출 5:6) 바로가 당일에 백성의 간역자들과 패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출 5:7)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줍게 하라

(출 5:8)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르므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출 5:9)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청난 노역을 부과하여 정신적 육체적으로 여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신앙과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려는 정책을 썼던 것입니다.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출 5:10)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출 5:11) 너희는 짚을 얻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출 5:12)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흠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출 5:13) 간역자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가로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당일 일을 당일에
마치라 하며

(출 5:14) 바로의 간역자들이 자기들의 세운바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을 때리며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당시 애굽에서는 나일 강변에서 퍼온 점토를 짚과 혼합해 내구성이 강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이 짚은 따로 제공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짚을 더 이상 제공해 주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서 쓰라고 합니다.

그러자면 시간과 수고가 더 드는데 백들의 수효는 전과 같이 만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수효를 맞추지 못하면 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바로 왕을 찾아가 호소를 해 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출 5:15)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찌하여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출 5:16)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종들이 매를
맞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의 허물이니이다

(출 5:17)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출 5:18)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을 여수히 바칠지니라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가 이렇게 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택하시면서 이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출 3:19)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의 가기를 허락지 아니하다가

(출 3:20)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그들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벌을 내리길 원했습니다.

(출 5:20)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출 5:21)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와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인 모세와 아론 사이에 불화를 조성하려는 바로의 책략은 성공을 거둔 셈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괴로워하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출 5:22)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출 5:23)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까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초월적인 경륜을 이해하지 못한 채 하나님께 자신의 한계를 탓하는 절규와 간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패역한 자로부터 압제를 당해야 하는 이유를 몰라 답답해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의인이 악인으로부터 핍박당하는 것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배후에는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경륜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높기 때문입니다.

(사 55:8)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사 55:9)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사 55:10)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삭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사 55: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사 55:12)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하나님을 무한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그분께 의탁시기 바랍니다.

지혜와 명철이 뛰어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